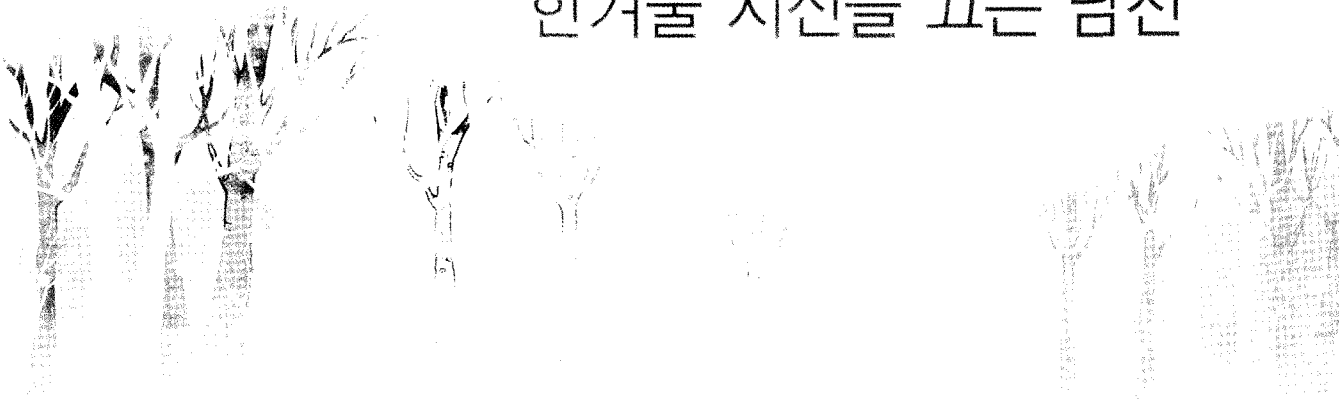


난대수종 알아보기

한겨울 시선을 끄는 남천



신현철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겨울을 나고 있는 나무들 특히 따스한 기온을 좋아하는 상록활엽수인 난대수종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이 삼한사온이라 하여 예년 경우를 보면 몇 일간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다가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오곤 하였는데 작년 연말부터 1월 달 내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겨울 가뭄이 시작되어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강우다운 강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질고 혹독한 겨울을

잘 견디어왔던 치자나무, 아왜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팽나무 등의 겨울 잎 색깔이 예년의 제 빛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남천은 겨울철에 주목을 받는 나무로 붉게 변하는 잎과 열매로 감상미를 더하게 하는 나무로 금년에는 예년처럼 밝은 색으로 채색되지 못한 채 겨울을 나고 있는 것 같다. 남천은 난대수종 중 내한성이 강하여 대구, 구미, 대전, 수원, 심지어 서울 일부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였는데 금년처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서의 월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혹독한 겨울기

온을 견디어낸다면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식재를 권장할 수 있는 수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극한 온도에 의해 식재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저온에 민감한 수종의 현지 적용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남천은 일본, 중국이 원산이며 우리나라는 60년대에 도입되어 남부지방에 식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명은 *Nandina domestica* Thunb.이며 *Nandina*는 남천(南天)의 일본 발음으로 *nanden*에서 유래하였다. 꽃은 6~7월에 20~40cm의 크기로 흰색이며 원추화서로 피고 꽃잎은 6매로 직경이 6mm정도 되지만 꽃 색깔이 수수하여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것 같다.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의 크기는 1cm 내외로서 열매 안에 2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열매의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 연분홍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란열매를 맺는 나무와 붉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서로 자연교잡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 붉은색 계통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겨울철에 잎이 붉게 변하지만 노란색의 열매는 잎 색깔이 변하지 않고 녹색 빛을 그대로 띠며 열매도 저온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감상 가치가 떨어지지만 봄철의 신초는 섯노란 색으로 매력적이다. 만약 붉은 잎의 남천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파종 전에 먼저 붉은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열매 색깔에 따라 나무의 자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천의 특징은 매자나무과 상록관목으로 1~3m 정도까지 자라며 늦가을부터 잎과 어린줄기까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겨울철에 절정을 보이다가 봄이 오면 다시 녹색으로 되돌아온다. 난대수종 중 내한성이 강하여 수도권에서 일부 월동은 하지만 겨울을 넘기면서 동해피해로 낙엽이 지고 봄에 새잎이 돌아온다. 그러나 남쪽지역이라고 해서 붉은 잎을 아무 곳에서나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음성이 강하여 그늘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재배하거나 건물의 뒤편, 음지에 식재하면 단풍이 제대로 들지 않고 겨울에도 잎

이나 줄기가 푸른 상태를 유지하는데 양지바른 곳에 식재하여야 일교차에 의해 아름답게 채색된 붉은 잎을 볼 수 있게 된다. 붉은 잎과 붉은 열매가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자태를 한겨울 내내 맘껏 뽐내게 된다.

남천의 번식은 파종이나 삽목 모두 용이한데 삽목은 3~4월, 6~7월, 9월 중에 실시하며 삽수 길이는 15cm내외 길이로 조제하며 반 정도의 해가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무의 생장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삽수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종자로 번식하는데 3~4월에 파종하면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대부분 발아가 시작되어 10월에는 생육이 정지되므로 다른 수종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고 생장이 느리므로 겨울철 동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하우스로 보온시설을 하거나 노지에 식재하였다면 서릿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밭아주거나 건조피해, 동해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묘목의 크기는 1-0묘가 2~4cm, 1-1묘는 6~10cm 정도 된다.

종자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씨앗을 말리게 되면 2년 만에 발아하거나 아예 발아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양묘하기 위해서는 종자 채취 후에 과육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 씨앗을 발라내어 양파를 저장하는 땅에 습한 모래와 1:3의 비율로 씨앗과 모래를 잘 섞어 50cm 깊이로 배수가 잘되는 곳에 노천매장하거나 채종 즉시 파종한다. 저장한 씨앗은 3~4월에 파종하는 것보다 7월~8월에 파종하면 제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파종은 노지에 파종하는 것보다 파종상자에 흩어 뿌림으로 파종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굴취하여 20cm 간격으로 이식하며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이식이 용이하다. 이식 상을 검정비닐로 멀칭하면 건조피해를 줄일 수 있고 생육도 촉진되고 제초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재배적지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하며 부식질이 풍부한 비옥한 토질이 좋으며 빛을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다.

남천의 주 용도는 조경수나 약용수로 이용되고 있는데 조경수로선 정원수, 중앙분리대, 생울타리 등 군집으로 심거나 전석 쌓기의 돌과 돌 사이에 잘 어울리며 큰 나무아래에 지면피복용으로 수하식재

하기도하며 분화식물로 재배하기도 한다. 또한 겨울철 붉은 열매와 잎으로 꽃꽂이 소재로 쓰기도 한다. 분화로 재배 할 경우에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름철 실외에서 충분히 햇빛을 받도록 재배하였다가 늦가을경 잎이 적당히 물들기 시작할 때 실내로 들이는 것이 좋는데 이렇게 하면 잎 색깔이 예쁘게 채색되고 열매도 충실하게 달리기 때문이다.

남천의 잎을 남천죽엽, 뿌리를 남천죽근, 열매를 남천실(南天實) 또는 남천죽자라 하며 해수, 천식, 백일해, 간 기능장애, 위장염 등에 복용하는 다용도의 한약재로도 쓰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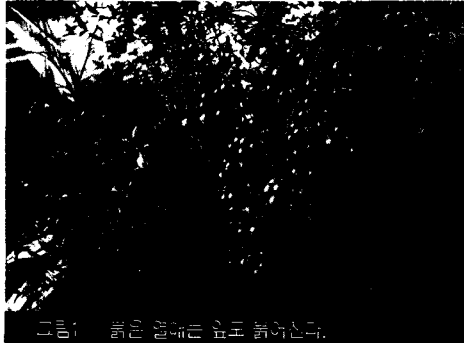


그림1 > 붉은 열매는 잎도 붉어진다.



그림2 > 노랑 열매는 잎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그림3 > 각기 다른 열매 색깔



그림4 > 노랑 열매의 신초(4월)



< 그림5 > 소나무수하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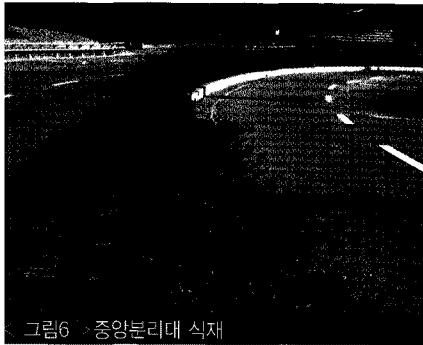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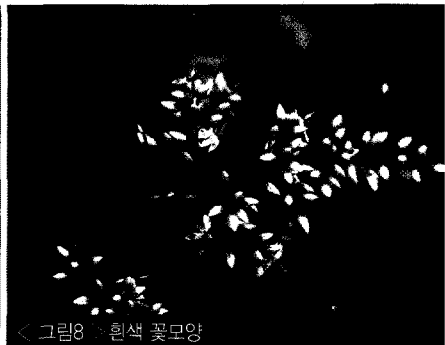


그림6 > 중앙분리대 식재



그림7 > 수피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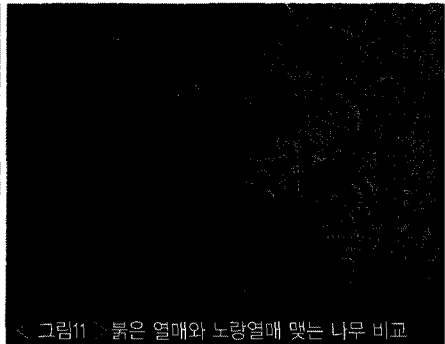
< 그림8 > 흰색 꽃모양



그림9 > 잎모양



그림10 > 여름철 수형



< 그림11 > 붉은 열매와 노랑 열매 맺는 나무 비교